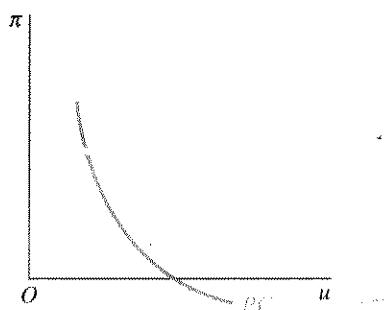


I. 필립스곡선

1. 필립스곡선의 개념

- ① 영국의 경제학자 Phillips가 실증분석을 통하여 명목임금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에 역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
- ② 이후에 Lipsey가 명목임금상승률을 물가상승률(인플레이션율)로 수정
- ③ 현재 사용하는 필립스곡선은 인플레이션율(π)과 실업률(u)간의 역의 관계를 나타냄
- ④ 필립스곡선은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에 존재하는 역의 관계(trade-off)를 나타내므로 다음의 식으로 표시

$$\pi = -\alpha(u - u_N) \quad \begin{cases} \alpha > 0 \\ u : \text{실제실업률} \\ u_N : \text{자연실업률} \end{cases}$$



필립스곡선

우하향의 필립스곡선은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에 존재하는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.

2. 필립스곡선과 총공급곡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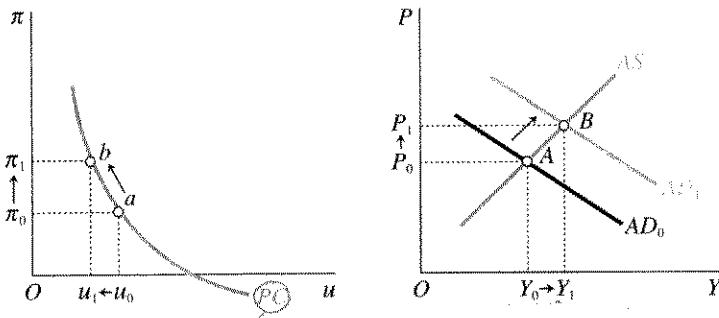
① 우하향의 필립스곡선은 우상향의 총공급곡선과 밀접한 관계

$A\text{점} \rightarrow B\text{점}$ < 산출량증가($Y_0 \rightarrow Y_1$) → 실업률 하락
물가상승($P_0 \rightarrow P_1$) → 물가상승률 상승

② 따라서 총공급곡선상에서 ($A\text{점} \rightarrow B\text{점}$)으로의 이동은 필립스곡선상에서 ($a\text{점} \rightarrow b\text{점}$)의 이동에 대응

필립스곡선과 총공급곡선의 관계

총공급곡선상의 A 점에서 B 점으로 이동하면 물가가 상승하고 산출량이 증가한다. 이와 같이 총공급곡선을 따라서 우상방으로 이동하는 것은 필립스곡선을 따라서 좌상방으로 이동하는 것임을 의미한다.



※ 고전학파의 경우는 AS곡선이 수직선이므로 필립스곡선도 수직선임

3. 필립스곡선의 의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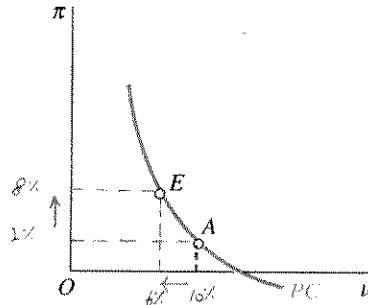
(1) 의 미

필립스곡선이 우하향하므로 < 실업률 ↓ → 인플레이션 ↑
인플레이션 ↓ → 실업률 ↑
→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

(2) 케인즈학파의 해석

① 필립스곡선이 우하향하므로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비록 불가능하나 재량적인 재정·금융정책을 통하여 사회후생이 극대화되는 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해석

- ② 즉, 우하향의 필립스곡선이 재량적인 안정화정책(미조정, fine-tuning)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봄
- ③ 예를 들어, 현재 경제가 A점에 있으나 E점이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점이라면 E점에 도달하기 위해 재량적인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받아들임



필립스곡선에 대한 케인즈학파의 해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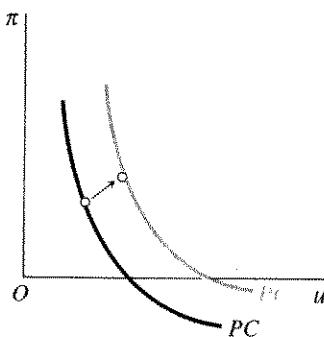
케인즈학파는 우하향의 필립스곡선은 정책담당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의 조합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.

※ 미조정(fine-tuning)

- ①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경제를 안정된 상태로 유지시키려는 정책
- ② 기본적으로 케인즈학파는 미조정을 통하여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봄

4. 스태그플레이션과 필립스곡선

- ① 1970년대에 들어와 인플레이션율도 높아지고 경기도 침체(실업률 증가)하는 스태그플레이션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필립스곡선이 우상방으로 이동
- ② 이에 따라 필립스곡선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던 기존의 견해가 붕괴



스태그플레이션과 필립스곡선의 이동

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이 모두 상승하므로 필립스곡선 자체가 우상방으로 이동한다.

II. 스태그플레이션과 자연실업률가설

1. 비용인상 인플레이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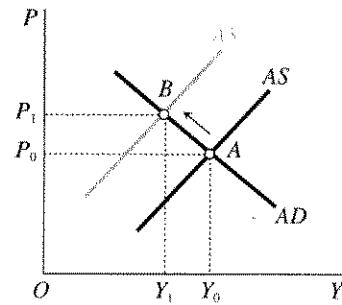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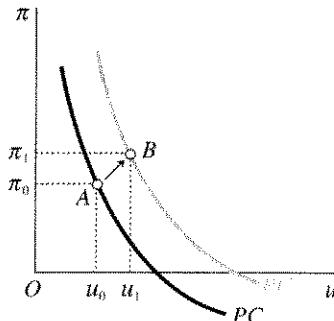
- ① 일부 케인즈학파 경제학자들은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을 이용하여 스태그플레이션 현상(필립스곡선이 우상방으로 이동하는 현상)에 대한 설명을 시도 하였음
- ② 이들에 따르면 원유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공급충격이 발생하면 AS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므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



- ③ 실증분석에 따르면 이미 석유파동이 발생하기 전부터 인플레이션과 실업률간에 안정적인 우하향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였고
- ④ 1980년대에 들어와 국제원자재 가격은 대폭 하락하였으나 필립스곡선은 원래 위치로 복귀하지 않았음이 확인됨
 →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으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

비용인상 인플레이션과 필립스곡선의 이동

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총공급곡선이 좌상방으로 이동하므로 필립스곡선은 우상방으로 이동한다.



2. 자연실업률가설

(1) 자연실업률

1) 개념

- ① 자연실업률(natural rate of unemployment)은 노동시장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 취업자와 실업자의 수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실업률을 의미
② 균형실업률이라고도 함

→ 노동시장이 동태적으로 균형.

2) 자연실업률의 도출

- ① 경제활동인구가 고정되어 있을 때 실직률을 s , 구직률을 f 로 나타내면 매 기당 sE 명이 실업자가 되는 반면 fU 명이 취업자가 됨
② 자연실업률(균형실업률) 수준에서는 새로이 실업자가 되는 사람의 수와 새로이 취업자가 되는 사람의 수가 동일하므로 $sE = fU$ 가 성립
③ 실업률(u)은 $u = U/(U+E)$ 로 정의되므로 노동시장이 균형을 이루는 자연 실업률은 다음과 같이 결정

$$u_n = \frac{U}{U+E} = \frac{U}{U + \frac{f}{s}U} = \frac{s}{s+f}$$



- ⓐ 취업자가 900명, 실업자가 100명이고 $s=0.01$, $f=0.09$ 라면 노동시장이 동태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이며 자연실업률(균형실업률)은 10%로 계산

$$u_n = \frac{s}{s+f} = \frac{0.01}{0.01+0.09} = \frac{1}{10} = 10\%$$

3) 자연실업률에 대한 다른 정의

노동시장이 동태적인 균형을 이루는 균형실업률 이외에도 자연실업률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

- 마찰적 실업(혹은 자발적 실업)만 존재할 때의 실업률
- 물가상승률이 더 높아지거나 낮아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의 실업률(물가안정실업률)
- 잠재GDP수준에서의 실업률
- 장기적인 평균실업률

p. 385

E = 실업자 수

F = 취업자 수